

# 큰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됨

2022년 8월 28일 설교

열왕기하 5:1-17

크리스 식스 목사

우리는 올해 New City Catechism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것에 대한 훌륭한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35번 문제를 읽고 그 답을 함께 읽을 것입니다.

## 35문: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모든 선물은 믿음 자체를 포함하여 성령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믿음의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그 믿음을 연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어 우리 대신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성령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리아 장군을 만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언약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살펴볼 것입니다.

Point 1. 나아만의 교만이 구원에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 방법.

Point 2.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겸손을 가르치신 세 가지 방법;

## 열왕기하 5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 1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큰 사람ियो 그 주인에게 은총을 입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아람을 이기게 하셨음이라.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 2 이제 시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습격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데려갔고, 그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 3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이다.”
- 4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에게 고하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 5 아람 왕이 이르되 이제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그래서 그는 은 열 달란트와 금 육천 세겔과 옷 열 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 6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가져왔으니 그 편지에 이르되 이 편지가 네게 이르거든 내가 내 종 나아만을 네게 보낸 줄을 알지니 이는 그의 문둥병을 고치게 하려 함이라
- 7 이스라엘 왕이 그 조서를 읽고 자기 옷을 찢고 이르되 나는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문둥병을 고치게 하느냐  
그가 어떻게 나와 다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8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이제 그가 내게로 와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소서.”
- 9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섰습니다.
- 10 엘리사가 그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리라”
- 11 나아만은 노하여 가되 이르되  
“보라,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리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하였노라.
- 12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발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는 그것들을 씻고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몸을 돌려 가버렸다.

- 13 그의 신하들이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네게 이르신 큰 말씀이여 행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가 실제로 당신에게 ‘씻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 14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과 같이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  
어 정결하였더라
- 15 나아만과 그의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섰더니  
나아만이 가로되 보라 내가 온 땅에 이스라엘 외에 신이 없는 줄 아노라 ...
- 17 이제부터 주의 종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번제나 희생을 드리지 아니하리이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열어 주소서. 아멘.

## **Point 1. 나아만의 교만이 구원에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 방법.**

나아만 장군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고, 부유하고, 연결되어 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에게 이러한 많은 축복을 주신 창조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1절에서 나아만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나아만은 시리아의 성공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한 분을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나아만은 결국 믿음에 이르지만 세 가지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1. 위치; 2) 소유물; 3) 권력.

**영향력 있는 지위, 많은 재산, 상당한 권력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깊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때때로 하나님은 문제가 편안한 사람들의 삶에 침투하여 깨우도록 하실 만큼 자비로우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천국의 문을 닫으셨다는 뜻입니까? 당연히 아니지. 나는 부자들의 문제가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간의 자존심은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편안함이라는 추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물질적 필요가 없으면 궁핍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질적 안락함과 세속적 성공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땅콩을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의 강한 충격. 계시록 3:17에는 편안한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나아만은 부유하고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러한 필요는 복음이 나아만의 마음에 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나아만의 교만을 죽여야 했습니다. 나병으로 나아만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저렸지만 나아만의 교만이 그의 마음을 마비시켰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라는 말을 듣고 대신 두 왕에게 갑니다. 강력한 치료법을 얻기 위해 그는 강력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영향력 있는 위치를 이용하여 한 왕에게서 다른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악관에 와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아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둘째, 나아만은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여 병을 고쳤습니다. 그는 400만 달러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은과 금의 가치는 오늘날 가치입니다. 나아만은 나병 치료제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쓸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어야 할 경우에 대비합니다.

셋째, 나아만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병을 고칩니다. 그는 말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여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앞에 나타나지 않고 종을 보내자, 위대한 장군은 분노합니다. 나아만은 “나는 그가 반드시 나에게 나올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이 작은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엘리사가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다니!” 나아만은 분노와 군사력을 발휘하여 엘리사를 괴롭히고 치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이 은혜로만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모든 사람이 전략은 실패합니다. 그 편지는 이스라엘 왕을 자기 중심적인 공황 상태에 빠뜨릴 뿐입니다. 나아만의 돈은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장군의 외침과 요구는 그를 아무데도 데려가지 못합니다. 과거 나아만의 지위와 재물과 권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워싱턴 DC와 같은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위, 소유물, 권력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나아만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나아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공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자신의 자원으로 치유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아만의 몸과 영혼은 오직 은혜로 회복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하

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거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Point 2.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겸손을 가르치신 세 가지 방법.**

나아만의 겸손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그의 질병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성공을 누리다 보면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데 전념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프거나 직장을 잃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큰 TV와 좋은 차가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갑자기, 그 위기가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전에 당신을 만족시켰고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무력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무력한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나병을 사용하여 그의 죽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위와 재산과 권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궁핍한 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십니다.

여호와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생소한 이름, 미완의 문장이다. I AM은 백지 수표와 같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경과 같습니다. 여호와-살롬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당신의 평화입니다. 여호와-이레: 나는 당신의 공급자입니다. 나아만에게는 평화나 공급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에 걸린 나병환자로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라파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치료자입니다.

겸손에 대한 나아만의 두 번째 교훈은 작은 메신저 소녀입니다. 1절의 "위대한 사람"과 2절의 "어린 소녀" 사이에는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강하고 부자입니다. 그녀는 무력하고 돈이 없습니다. 나아만은 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유가 없는 노예이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하나님이 이 장소와 시간에 사용하기로 선택한 도구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당신에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이 소녀에게 위험할 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설교에서 그녀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지금 겸손에 대한 나아만의 세 번째 교훈인 뜻밖의 목욕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아만은 큰 병에 걸린 덩치 큰 사람이기 때문에 값비싼 큰 치료법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단순하고 겸손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아만의 자존심에 가혹한 일입니다. 순전히 은혜로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위와 소유와 권세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구세주를 영접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믿는다면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2:8-9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당신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은 성령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 친구 나아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고칠 수 없고 나아만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치유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그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병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만은 왜 이 진흙 투성이의 작은 강으로 가서 일곱 번 씻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내가 무신론자였을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어떤 유대인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용서와 영원한 평화와 영생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25절에서 복음에 대해 말한 것을 보십시오.

22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미련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23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하면 유대인들은 화내고 이방인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24 그러나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 하나님의 이 어리석은 계획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가장 큰 것보다 강하시도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강한 나아만을 돕기 위해 약한 여종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외국 강에서 목욕하는 어리석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만큼 겸손할 수 있도록 그의 교만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나아만은 마침내 싸움을 멈추고 목욕을 합니다. 그

의 삶이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10절에서 언급한 두 가지 별개의 것입니다. 나아만은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은 겉으로는 고침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의 치유가 외부적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세 가지를 본다. 먼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에서 동쪽으로 요단강으로 여행했습니다. 병이 낫고 난 후에는 계속 동쪽으로 돌아가 다메섹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가 감사하기 위해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16-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환자를 고쳐주시고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성전에서 돌아왔을 때를 상기시켜줍니다.

16 나병환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

19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나아만과 사마리아인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나병을 고침 받은 두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감사하기 위해 돌아올 때 우리는 그의 개종의 두 번째 징조를 봅니다. 15절에서 그는 엘리사에게 “이제 청컨대 당신 종의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기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던 오만한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를 엘리사의 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겸손했기 때문에 이 장에서 다섯 번이나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나아만의 교만이 전에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5절과 17절에서 그가 한 말을 들었습니까?


15 나아만이 가로되 보라 내가 온 땅에 이스라엘 외에 신이 없는 줄 아노라 ...

17 이제부터 주의 종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번제나 희생을 드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기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 열방을 자신에게로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은 종종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One Voice Fellowship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오늘 본 것과 같은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사용하여 모든 나라의 죄인들에게 그들이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권세와 재물과 지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짓 우상임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온 이 어린 소녀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만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이야기의 조용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다음 주에 이곳에 와서 그녀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자 적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믿게 하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ne Voice Fellowship